



[부동산] 수익 내린 강남 재건축 집값 전세는 '실종' 03



Economy

코스피	2300.16 (+33.01)	코스닥	802.95 (+10.30)
금리 (연간)	0.971 (+0.036)	환율 (원/달러)	1133.60 (-1.50) (2일)



삼성전자가 1일 창립 51주년을 맞이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전날 창립기념일이 휴일이고, 이견희 회장 장례 후 삼우제 등을 고려해 기념 행사가 2일 진행된다. 이번 창립기념일은 이견희 회장 별세 이후 처음 맞는 창립기념일이어서 삼성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관련기사 6면> /연합뉴스

# “팬데믹·자연재해 등 문제 AI 기술로 해결·예견 시도”

‘삼성 AI포럼 2020’ 개막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AI 기술 나아갈 방향 제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이 2일 온라인으로 열린 ‘삼성 AI포럼 2020’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부회장)는 2일 “최근 AI 기술이 사람들의 삶에 빠르게 적용되며 긍정적 영향을 줬지만 팬데믹, 자연재해와 같은 대량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은 현재의 AI 알고리즘과 하드웨어로는 해결이 어려운 도전과제”라며 AI 기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회장은 2일 온라인으로 개최된 ‘삼성 AI포럼 2020’에서 개회사를 통해 “삼성은 AI 생태계의 핵심 기술 회사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 세계 연구자들과 적극 협력함으로써 올바른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로 4번째로, 3일까지 개최되는 ‘삼성 AI포럼’은 세계적인 AI 전문가들이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최근 팬데믹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인간의 삶에 AI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가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극적으로 바꿔냈고, 건강과 지역사회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우리도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지나며 내 구성을 키워야 할 때이며, 헬스케어에 대한 투자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효과적인 약을 찾거나 바이러스 전파를

추적하는 데 AI를 적용하면서 높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만, AI 기반 솔루션과 툴은 빠르게 개발되는 데 반해, 아직 AI가 심각한 질병을 낮게 하는 치료제 개발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I는 일부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못한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모델링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그럼에도 최근 인공지능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고, 오디오 비디오 인식, GPT-3가 선보인 자연어 이해 등 많은 애플리케이션에서 눈에 띄는 업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AI의 위업은 아마어마한 학습 데이터에 의해서만 인간을 뛰어넘는 인식 수준을 보여준다”며 “AI로 팬데믹과 같은 현실세계 문제를 풀거나 자연재해를 예견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 기자 echo@

# ‘세계적 금리 제도’ 반면교사 대출 소외계층 없는 정책 절실

## 진퇴양난 금리정책

### 최고금리 인하의 딜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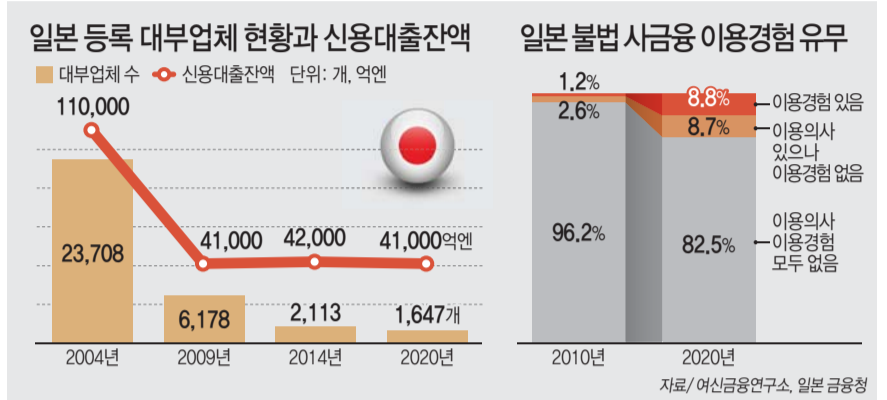
日·홍콩, 절대적 상한 제한  
美, 상한·고금리 허용 투트랙  
유럽연합, 시장금리와 연동

법정 최고금리를 다른 나라와 일괄적으로 비교하는 건 쉽지 않다. 한국처럼 금리상한 수준을 제한하는 나라도 있지만 적용범위에 따라 금리상한 수준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나라도 많기 때문이다.

현재 금리에 절대적인 상한선을 그어 제한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홍콩 등이다. 미국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뉴욕(연 16%), 플로리다(연 30%) 등 43개주가 금리상한을 두고, 36개주는 소액단기대출에 한해 고금리 부과를 허용한다. 유럽연합(EU) 국가는 금리상한을 시장 금리와 연동하고 있다.

### 유럽, 시장금리와 연동

대다수 유럽연합 국가는 금리상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장금리와 연동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연동할 경우 대출의 종류를 구분해 종류별로 금리상한을 다르게 설정한다.



예컨대 프랑스는 금리상한을 시장 평균금리의 1.33배로 설정해 놓았지만 모기지대출, 소비자신용대출, 기관대출 등 범주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적용한다. 즉, 모기지대출의 평균 시장금리가 연 4.72%라면 금리상한은 이의 1.33배인 6.28%가 된다.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신용대출의 평균 시장금리가 16.22%라면 금리상한은 이의 1.33배인 21.57%다.

문제는 시장 평균금리가 높을 때 발생한다. 슬로베니아는 금리상한을 대출 종류별로 평균 시장금리의 2배로 설정했다. 만기 2개월 이내 200유로 이하 단기소액대출의 시장평균금리는 지난 2009년 기준 226.5%였는데, 이 경우 금리상한이 연 453%로 치솟을 수 있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일은 시장 금리의 2배를 하고 있지만 ‘시장 금리보다 12%포인트 많은 값’ 중

작은 수치를 기준으로 폭리를 판단한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세부 규칙으로 1일 이하 0.8%(연 288%)를 최고금리로 두고 있으며, 총 대출 비용이 대출금의 10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 금리인하 후 대부업체 급감  
우리와 비슷한 일본은 1999년 대출 상한금리를 연 40.4%에서 29.2%로 2010년에는 다시 20%로 낮췄다.

여신금융협회 산하 여신금융연구소가 발표한 일본 대금업(대부업) 규제 강화 이후 10년간 시장변화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 이후 일본 대부업체는 크게 축소됐다.

대부업체는 지난 2009년 6178개에서 올해 1647개로 73.3%감소했다. 총 대출잔액도 15조4000억엔에서 12조4000억엔으로 줄었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근로자 잇단 사망... ‘택배 단가 정상화’ 수면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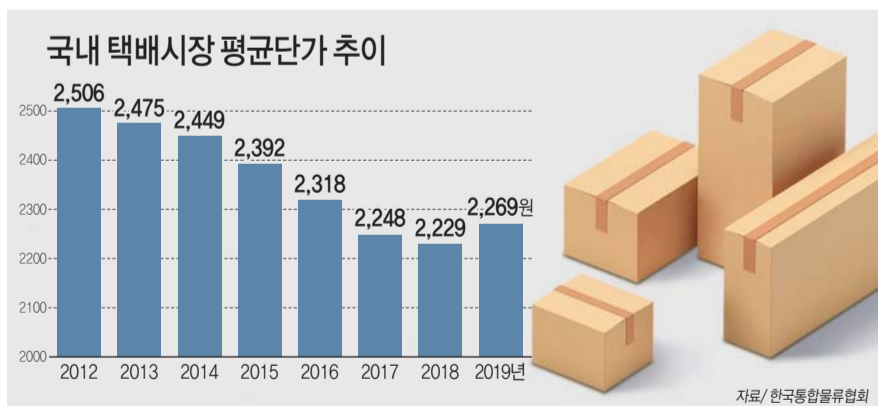
역마진·리베이트 등 관행 없애면  
현 소비자 부담, 택배비 수준 유지

택배 근로자들의 잇단 사망과 관련 회사들의 대책 마련이 이어지는 등 택배 업계가 전환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수면아래에 가려왔던 ‘택배 단가 정상화’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다.

택배단가가 온라인 쇼핑물 등 일감을 주는 화주와 택배사간 계약 과정에서 시장가격에 따라 결정되지만 역마진, 리베이트와 같은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이참에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종사자 과로사 등 불미스러운 일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이유에서다.

택배단가 정상화→택배 기사 등 운반 수수료 증가→일정 수입 유지를 위한 과도한 업무 경감→사건·사고 최소화 등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1명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는 화주와 택배사업자간 ‘부정한 대가의 지급 및 수취를 금지하는 장치 도입’ 내용이 포함돼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앞서 발표한 국내 택배시장 단가는 2012년 당시 평균 2506원에서 2449원(2014년)→2318원(2016년)→2229원(2018년)으로 점점 하락하다가 지난해 2269원으로 반짝 상승했다.

추락하던 택배단가가 지난해에 전년보다 40원(1.8%) 오른 것은 규격을 초과하는 택배상자나 모양이 다양한 제

품(비규격 이형화물)에 대한 원가가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불거지면서 택배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업체들간 경쟁 격화로 택배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격이 하락한 택배단가가 이처럼 2200원대에 형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들이 택배 한 상자당 가져가는 실제 수수료는 700~800원 수준이다.

(3면에 계속) /김승호 기자 bada@